

2017년 6월 24일 서울시 공무원 국어 해설지 ㉔형 정답 가안

1. 문법 표준 발음, 로마자

정답 ②

학여울 [항녀울]

표준발음법 제29항에 의하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학여울'은 백로가 빈번히 날아드는 '여울'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이므로, '학'의 받침 'ㄱ' 뒤 첫 음절이 '여'이므로 'ㄴ'이 첨가되어 [학녀울]이 된다..

이것은 또 자음동화 현상에 의해 'ㄱ'받침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뀐다. 따라서 '학여울'의 발음은 단순히 연음을 한 '하겨울'이 아니라 [항녀울]이 된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ㄴ' 첨가가 일어난다. → 학녀울

'학녀울'에서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비음화 되었다.

→ [항녀울]

① 선릉[선능] (X), 선릉[설릉] (O) 유음화, Seolleung

③ 낙동강 [낙똥강] 된소리되기, 로마자 표기에서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Nakddonggang(X), Nakdonggang(O)

④ 집현전 [지편전] 축약, 단,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Jipyeonjeon(X), Jiphyeonjeon(O)

2. 문법 맞춤법

정답 ③

'뒤풀이, 뒤통수, 위층, 위쪽'으로 적는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뒤'로 적는다.

맥주+집=맥줏집, '맥주'와 '집', 한자어+우리말, 사잇소리를 적어야 한다.

① 부는(X), 분는(O)

방학 동안 몸이 분는 바람에 작년엔 산 옷이 맞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는 '체중이 분다'의 의미로 쓰였다.

※ ‘붓다’와 ‘분다’

‘붓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얼굴이 붓다/병으로 간이 붓다/울어서 눈이 붓다/다리가 통통 붓다/벌에 쏘인 자리가 붓다/편도선이 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고,

‘분다’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개울물이 분다/체중이 분다/젓이 불어 오르다/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재산이 분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② 넉넉치(X), 넉넉지(O) ‘넉넉하지’에서 ‘하’가 아주 줄어든 말. 넉넉(하)지→넉넉지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로서(O)

문맥에 따라 ‘로써’ 또는 ‘로서’가 쓰인다. ‘자료’, 즉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 어떤 일을 한다.’라는 문맥이면,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의 뜻을 나타내는 ‘로써’를 쓰고, ‘무엇이 어떠한’ 자료이다.’, ‘자료’가 ‘무엇’의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문맥이면, 지위나 신분, 자격의 뜻을 나타내는 ‘로서’를 쓴다.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 책은 중세 국어의 가치 있는 자료이다.’ 즉, 자격을 나타내므로 ‘로서’가 바른 표기이다.

3. 문법 국어사

정답 ①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충격적이게도 외국인이다.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문헌으로는 1877년 존 로스(선교사, 스코틀랜드)가 지은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것은 1896 ‘독립신문’이 발간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띄어쓰기를 규범화하였다.

② 고대국어의 주격 조사: 오로지 |, 이, ∅

주격 조사 ‘가’의 등장은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6C말이다. 송강 정철의 어머니가 편지에서 주격 조사 ‘가’를 썼다고는 하나 용례가 부족하다. 실제로 주격 조사 ‘가’가 활발히 쓰인 것은 1676년 <첩해신어>에서부터이다.

※ 참고 : 고대국어: 삼국이전~통일신라
중세국어: 10C~16C (고려~임전왜란 전)

③ ‘·’의 소실

통칭 ‘아래 아’라고 부르는 ‘·’는 1910년경에 소실되게 된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면서 조선총독부를 세우고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가르치게 되는 조선 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때 일본인들은 '·'를 강제로 없애버린다.

음가가 소실되었다는 것은 'ㅏ', 'ㅑ'의 중간음이라 생각되는 소리 '·'의 발음이 변하면서 'ㅡ' 또는 'ㅏ' 또는 'ㅑ'등으로 발음하게 되어 원래의 음가가 사라졌다는 말이고, 그럼에도 독립신문 등에서는 여전히 표기를 하게 된다.

표기는 '·'로 하되 그 발음은 'ㅡ' 또는 'ㅏ' 또는 'ㅑ'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생길 때 '·'는 전면 폐지되고, 표기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④ 병(순경음 비음): 용비어천가(1445), 월인천강지곡(1447)에서 주로 쓰임. 거의 15C말까지 쓰이다가 소실됨. 이후 'ㅏ/ㅑ'로 바뀜.

4. 독해, 작문 복합

정답 ③

두괄식일 때, 소문단의 주제 문장은 당연히 가장 먼저 와야 한다.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을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가 된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은 의리 정신을 실천한 구체적 인물 '눌최'를 예로 들고 있다. ㉢은 ㉡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면 '㉣은 왜 ㉡, ㉢ 다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똑같은 예시문장 이지만 ㉣에서 의리 정신을 실천한 인물 '죽죽' 다음에 오는 보조사 '도'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즉 보조사 '도'를 통해 "죽죽도 '눌최'와 마찬가지로 의리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와 같은 문장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

5. 문학 현대시

정답 ③

운동주의 시 세계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다.

운동주 1. 일제 식민지하를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 시인이다.

2. 그가 지향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이상, 즉 조국 광복이다.

① 청자는 친구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현실적 욕망' 자체가 운동주 시세계에는 아예 없는 말이다. 현실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 전보다 나아진다하더라도 그것은 운동주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운동주의 이상이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 해도 무방하다. 운동주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 시인이다.

6. 문법 어휘 관계

정답 ①

①은 '살다 - 죽다'의 중간항이 없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 나머지는 반대 관계

② 높다 ↔ 낮다 (중간항: 알맞다, 적당하다)

③ 늙다 ↔ 젊다 (중간항: 노년(老年) - 중년(中年) - 청년(青年))

④ 뜨겁다 ↔ 차갑다 (중간항: 미지근하다)

반의 관계, 반의어(反義語)

1. 한 쌍의 단어가 어떤 의미상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요소만 반대되는 관계.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反義語)'라고 한다.

※ 단어들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한 개의 요소만 달라야 한다.

ex. 남자 ↔ 여자 (O) 공통 요소: 사람, 차이점: 성(性)

총각 ↔ 처녀 (O) 공통 요소: 사람, 미혼, 차이점: 성(性)

ex. 할아버지 ↔ 손녀 (X) : '성(性), 나이' 공통 요소: 사람, 차이점: 성(性), 나이

2. 반의 관계는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로 구별된다.

1) 반대 관계 : 중간 항이 있다. (상↔하, 흑인↔백인)

ex. 크다 ↔ 작다 (알맞다)

진보 ↔ 보수 (중도)

차갑다 ↔ 뜨겁다 (미지근)

2) 모순 관계 : 중간 항이 없다. (남자↔여자, 국내↔국외)

ex. 있다 ↔ 없다

살다 ↔ 죽다

7. 문법 단어 합성어, 파생어

정답 ①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는 모두 파생어(어근+접사)이다.

그래서 정답은 '건-어물' ①번이 정답이다.

한자어 접두사 건(乾):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함.

건-가자미, 건-과자, 건-어물, 건-포도

② '금지(명사 어근)+곡(명사 어근)' 합성어 ③ '한자(명사 어근)+음(명사 어근)' 합성어

④ '핵(명사 어근)+폭발(명사 어근)' 합성어

8. 문법 자음체계

정답 ④

④번에 있는 ‘병’은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음체계

아(牙) 어금니	① ㄱ	ㄲ	ㅋ	ㆁ
설(舌) 혀	ㄷ	② ㄸ	ㅌ	ㄴ
순(脣) 입술	③ ㅁ	ㅂ	ㅍ	ㅁ
치(齒) 이	④ ㅅ ⑤ ㅆ	ㅈ ㅊ	ㅊ	
후(喉) 목구멍	⑥ ㅎ	ㅅ ㅎ	ㅎ	ㅇ

악! 아음엔 ㄱ/ 설에는 딱! 설음엔 ㄸ/ 이런 것도 몰랐으니 순 밥통! 순음엔 ㅁ
치음엔 ㅅ ‘ㅅ’은 이빨! 치음엔 ㅅ/ 喉(후) 이비인후과 목구멍 후! 후음엔 ㅎ

아음엔 기끼키, ㆁ/ 설음엔 디띠티, ㄴ/ 순음엔 비뽀피, ㅁ/ 치음엔 쌍, 짱, 창, ㅅ, ㅆ/ 후음엔
ㅎ, ㅅ ㅎ, ㅎ, ㅇ

그리고 반치음 시옷 ‘ㅅ’/ 반설음 ‘ㄷ’

총 23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순수국어에서 된소리(ㄲ, ㄸ, ㅂ, ㅈ, ㅊ, ㅅ ㅎ)를 사용하지 않았다.

된소리는 중국발음 표기에만 사용했다. 그래서 순수국어에서 사용되는 자음은
총 23개에서 6개를 뺀 17개.

9. 독해 오류의 종류

정답 ①

보기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는 ‘균중심리
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①번이다.

②번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③번은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④번은 논리적 오류와는 연관이 없다.

※ 오류의 종류

1) 순환논증의 오류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오류

ex.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

2)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동정심 때문에 어떤 논증을 받아들일 경우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피면접자가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토끼 같은 애들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진 지는 거의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 저를 꼭 뽑아 주십시오.’

여기서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과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ex.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변론했다. 판사님, 피고인은 단칸방에 살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3명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매일 매일 막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처지를 참작하시어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균중심리에 호소하는 오류

어떤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균중심리나 열광하는 대중들에게 호소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려는 논증

ex. "100만대 돌파 특별 할인 세일, 이 상품의 품질은 그 동안 애용해 주신 100만 고객이 보증합니다. 지금 대리점으로 오십시오."

4)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근거가 되는 권위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지니고 있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류

ex.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로 연주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우유를 한 컵씩 마신다. 왜냐하면 그는 우유를 마시면서 긴장을 푸는 습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는 긴장을 푸는데에 효과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 앞에 나설 때나 시험을 치기 전에 우유를 마시도록 하자.

5) 인신공격의 오류

주장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트집 잡아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오류이다.

ex. 철수의 주장은 틀렸다. 왜냐 하면 그는 고작 10살이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관찰이나 실험 등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편향되어 있을 경우

ex. A지방 출신들은 모두 머리가 영리하다. A지방 출신인 철수는 작년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을 했고, 역시 A지방 출신인 영희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을 했으니까.

7)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
유비(유추)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ex. ‘미인박명’이라는 말이 있다. 영희는 미인이기 때문에 일찍 죽을 것이다.

8)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어떠한 사실이나 인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ex.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은 존재한다.

ex.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천국은 존재한다.

9) 흑백 논리의 오류
어떤 주장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ex.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단계인지 확신이 없어서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는 나를 증오하는구나!”

10) 원인 오판의 오류
인과적 논증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ex.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11) 통합의 오류
부분들에 참인 것을 그 부분들을 결합한 전체에 대해서도 참인 것으로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ex. 피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카나리아도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종달새도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모든 새들을 모아서 소리를 낸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이다.

12) 분할의 오류
전체에 대해 참인 것을 그 구성 요소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이라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ex. 물은 액체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소와 산소도 액체다.

10. 문학 현대소설 시점

정답 ④

치숙(痴叔) 채만식

痴: 어리석을 치. 叔 : 아재비 숙

줄거리

아저씨는 일본에 가서 대학에도 다녔고 나이가 서른셋이나 되지만, ‘나’가 보기에는 도무지 철이 들지 않아서 딱하기만 할 뿐이다.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로 쫓아 보내고 대학입네 하고 다니다가 신교육을 받았다는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무슨 사회주의 운동인지를 하다가 감옥살이 5년 만에 풀려났을 때, 아저씨는 이미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가 된다. 식모살이로 돈 100원을 모아 이제 쉬려던 참인 아주머니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아저씨를 데려가 할 짓 못할 짓 다 해서 구완하여 이제 병도 어지간히 나아가지만, 정작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다.

‘나’가 보기에, 경제학을 공부했다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서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은 없고, 남의 재산 뺏어다 나누어 먹자는 불한당질을 또 하겠다니 분명 헛공부한 게 틀림없다.

‘나’가 친정살이하던 아주머니 손에 자라서 그 은공으로 딱하게 여겨 정신 좀 차리라고 당부할 해도 아저씨는 도무지 막무가내다. 일본인 주인의 눈에 들어 일본 여자에게 장가들어 잘 살겠다는 ‘나’를 도리어 딱하다고 한다. 그러니 ‘나’가 보기에 아저씨는 도통 세상 물정도 모르는, 참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구성

발단 :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폐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 있는 오촌 고모부 아저씨 소개

전개 : 아주머니의 고생담과 ‘나’의 성장 과정

위기 :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나’

절정 : ‘나’와 아저씨의 대립

결말 :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실망

등장 인물

나-보통 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인 밑에서 사환으로 있는 소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황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기꺼이 일제에 동화되어 가겠다는 인물이다.

아저씨-대학을 나온 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는 병이 들어서 폐인이 되다시피한 지식인이다.

핵심 정리

갈래 : 단편 소설

성격 : 풍자적

갈등 :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 일제 시대 군산과 서울

※ 신빙성 없는 화자 (unreliable narrator): 서술자의 진실성에 상당부분 의심이 가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 서술자의 무지(無知), 편견, 정신적 미성숙으로 이야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다. 이러한 장치는 독자에게 흥미를 유도하거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확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기 위함이다. 주로 1인칭 관찰자시점에서 쓰인다.

11. 문법 어휘 속담

정답 ①

㉠ 가물에 도랑친다.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奔走)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比喩的)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과 ㉡의 공통점은 헛수고, 그래서 정답 ①번.

12. 한자 독음

정답 ②

改悛(개선) : 改: 고칠 개, 悛: 고칠 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① 陶冶(도야):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殺到(쇄도): 전차,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듦.

殺: 죽일 살, 빠를 쇠. 到: 이를 도

④ 汨沒(골몰):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汨: 빠질 골, 沒: 잠길 몰

13. 문법 띄어쓰기

정답 ③

‘동안’의 띄어쓰기

‘동안’은 명사로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동안’은 ‘-는’이라는 관형격 조사 뒤에 붙으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ex. 3시간 동안/ 사흘 동안/ 방학 동안/ 잠시 동안/ 얼마 동안/ 한참 동안의 침묵/사 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

‘때’(시간)처럼 하나의 명사로 붙여 쓰지 않으므로 ‘30년 동안’이 맞는 표현이다.

예외) ‘오랫동안, 한동안, 그동안’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① ㉠ 창 밖 → 창밖. 창(명사)+밖(명사) 합성어로서 붙여 쓴다.

② ㉡ 우단 천 → 우단 천: 우단으로 된 천(실로 짠,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의 감이 되는 물건.)
우단(羽緞, velvet, veludo): 거죽에 고운 털이 돌도록 짠 비단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화려하다.

※ 제시문에 ‘우단 ∨ 의자’라는 띄어쓰기 힌트가 있다.

④ ㉢ 일 밖에 → 일밖에

※ ‘밖에’의 띄어쓰기

“돈이 천 원밖에 없다.”의 ‘밖에’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대문 밖에 누가 왔다.”의 ‘밖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밖에’는 조사인 ‘밖에’가 있고 명사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가 있다. 물론 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고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조사 ‘밖에’와 명사 ‘밖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어의 의미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사 ‘밖에’가 쓰일 때는 서술어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 가진 돈이 천 원밖에 없어.

철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야.

이 일은 영수밖에 못해.

조사 ‘밖에’는 ‘없다’, ‘모르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뜻하는 말과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명사 ‘밖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밖에’의 띄어쓰기를 구별할 수 있다.

ex. 1) 생명체가 사는 곳이 지구밖에 없을까?

2) 우주 밖에 가 본 사람이 있을까?

∴ 1)은 붙여 쓰고, 2)는 띄어 쓴다.

14. 문학 현대소설 인물 중심으로 읽기

정답 ③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에서 '나'와 '김 박사'가 '박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주어진 제시문 속의 '나'는 '김 박사'이고, 환자는 '박준'이다.

(내가)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환자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환자는)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 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뭍니까. 아니 (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나한테)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우리가) 나중에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보호자(한테)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환자가 우리에게 한)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가짜 연락처로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환자의)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증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주어진 제시문에서 문맥을 살피면서 인물 중심으로 읽다 보면 정답이 ③번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소문의 벽 줄거리

잡지사 편집장인 '나'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누구에게인가 쫓기고 있다며 도와 달라는 한 사내를 만난다. 영겁결에 그를 하숙방으로 데려와 함께 잠이 들었던 '나'는 아침에 깨어나서 사내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한다. 이상한 생각이 든 '나'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 병원을 찾아갔다가 그 사내가 병원에서 도망친 환자 '박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담당 의사인 김 박사는 박준이 무엇인가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심한 히스테리의 일종인 '진술 거부증'에 걸렸다고 말한다. '박준'의 본명은 '박준일'로서 1~2년 전만 해도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던 소설가이다. '나'는 '박준'이 쓴 '괴상한 버릇', '벌거벗은 사장님' 그리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중편 소설 등을 읽게 된다. 그 소설 중에 '박준'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전짓불의 실체가 드러난다.

남해안의 조그만 포구(浦口)가 고향인 '박준'은 6·25가 일어났던 해 가을, 밤중에 밀어닥쳐 전짓불을 들이대고 좌익이나, 우익이나를 묻는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나'는 김 박사에게 찾아가서 '박준'의 병인(病因)을 이야기하지만, 김 박사는 자신의 권위 의식 때문에 '박준'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김 박사는 '박준'의 병실 불을 끄고 전짓불을 들이대는 치료 방법을 택하고 만다. 그 날 밤 '박준'은 병실을 도망쳐 나가 버린다. '나'는 '박준'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인가를 회의하면서 길을 걷다가 김 박사나 내가 박준의 병세를 더 악화시켰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한다.

15. 문학 문학사

정답 ②

- ㉠ 1970年代~1980年代 初
- ㉡ 1920年代
- ㉢ 1950年代
- ㉣ 1930年代

② ㉡ -㉢ -㉣ -㉠ 순서가 정답

㉠ 신경림 「농무」 1973, 고은 「만인보 서시」 1981, 김지하 「오적」 1970, 「타는 목마름으로」 1975

1970년대 한국현대시의 큰 흐름은 '참여시'이다. 참여시란 '시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독재 정부에 대한 비판, 산업화로 인한 '소외 현상'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1926, 카프(KAPF) 1925년 8월 결성
1920년대 한국현대시의 큰 흐름은 프롤레타리아를 찬양하는 카프 계열의 목적시와, 동인지 '백조' 1922,를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 김소월 「진달래꽃」 1925,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 계열이다.

㉢ 구상 「초토의 시」 1956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의 비극을 그려낸 작품들이 나타났다.
그 외에 1950년대에는 박인환 「목마와 숙녀」 1955, 중심의 '후기 모더니즘'이 있다.

㉣ 김기림 「기상도」 1936
1930년대 한국현대시의 흐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1931, 과 같은 순수시 운동/ 유치환 「생명의 서」 1938, 과 같은 생명파/ 김기림 「기상도」 1936, 「태양의 풍속」 1939, 김광균 「와사등」 1939 중심의 모더니즘 계열이 있다.

16. 어휘

정답 ②

굽적대다: 동사, [같은 말] 굽적거리다(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②번의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금실거리다

①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갓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③ 꼬약대다: 1.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2. 좁은 데로 많은 사람이거나 사물이 잇따라 몰려가거나 들어오다.

④ 끝끝내다: 1.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2. 트림하는 소리가 자꾸 나다.

17. 한자

정답 ②

사고(思考): 생각하고 궁리함. 생각 사, 생각할 고

① 討義 → 討議(토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칠 토, 의논할 의)

③ 先擇 → 選擇(선택: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 가릴 선, 가릴 택)

④ 準舉 → 準據(준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준할 준, 근거 거)

참고: 義: 옳을 의/ 先: 먼저 선/ 舉: 들 거

18. 문법 음운변동

정답 ④

④번은 첨가, 나머지는 대치(교체)

① 국+만[궁만]: 음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교체(대치)되었다.

② 물+난리[물랄리]: 음소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교체(대치)되었다.

③ 입+고[입꼬]: 파열음(ㄱ, ㄷ, ㅂ) 다음에 온 음소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대치)되었다.

※ 음운변동

음운변동에는 크게 교체(대치),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교체(대치)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있다.

탈락에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으’ 탈락 등이 있다.

첨가에는 ‘ㄴ’ 첨가가 있다.

축약은 ‘ㄱ, ㄷ, ㅂ, ㅈ’ + ‘ㅎ’ = 거센 소리 ‘ㅋ, ㅌ, ㅍ, ㅊ’로 줄어드는 경우를 말한다.

교체

1. 음절 끝소리 규칙

아(牙) 어금니	ㄱ	ㄲ	ㅋ	ㅇ
설(舌) 혀	ㄷ	ㄸ	ㅌ	ㄴ
순(脣) 입술	ㅂ	ㅃ	ㅍ	ㅁ
치(齒) 이	ㅅ ㅆ	ㅈ ㅊ	ㅊ	
후(喉) 목구멍	ㅎ	ㅎㅎ	헉	ㅇ

맨 앞 칸의 ‘ㄱ, ㄷ, ㅂ, ㅅ,’을 각 줄의 ‘대표음’이라 해보자.

아(牙)음 ‘ㄱ, ㄲ, ㅋ’의 대표음 ‘ㄱ’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박’, ‘밖’, ‘부엌’의 음절 끝소리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 각 줄의 대표음으로 발음이 난다. → 박[박], 밖[박], 부엌[부엌]
ex) 발[발], 잎[잎], -엿-[엇], 꽃[꽃]

이때 ‘후(喉)음’은 생각하지 말 것.

후(喉) 목구멍	ㅎ	ㅎㅎ	헉	ㅇ
-------------	---	----	---	---

대표음이 되는 ‘ㅎ’이 현대국어에서 안 쓰일 뿐만 아니라, ‘낱다’는 음절 끝소리로 오는 ‘ㅎ’과 뒤에 오는 ‘ㄷ’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이 된다. 이런 음운현상은 음절 끝소리규칙이라 하지 않고 ‘축약’이라고 한다.

※ 꽃[꽃], 꽃[꽃]

어느 것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꽃[꽃]이 맞다.

‘ㅅ’은 치음의 대표음이다. 그런데, 이 ‘ㅅ’은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ㄷ’과 발음이 같다. 그래서 ‘ㅅ’과 ‘ㄷ’의 경쟁에서 ‘ㄷ’이 더 대표음이 된 것이다. 그러니 치음계열 (ㅅ, ㅆ, ㅆ, ㅊ)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무조건 ‘ㄷ’으로 발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적용하면 위의 ‘-엿-[엇]’도 ‘-엿-[연]’으로 발음된다.

※ 음절 끝소리규칙

음절에서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은 일단 자음체계표에서 각 음(音)의 대표음으로 발음할 것. 그리고 ‘ㅅ’과 ‘ㄷ’의 대표음은 음절 끝소리(받침)에서는 ‘ㄷ’이 된다.

‘ㄷ’은 글자자체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네! ‘ㄷ’ 대표음

2. 비음화

비음(鼻音): 콧소리 (ㅁ, ㄴ, ㅇ)

비음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ex) 먹는다 → 멍는다

우선 '먹는다'에서 비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먹'에서 'ㅁ', '는'에서 'ㄴ' 2개)

비음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음운이 변동되는 것은? '먹'에서 받침 'ㄱ'이 'ㅇ'으로 바뀌었다.

비음 아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현상.

'먹'에서 'ㅁ'과 '는'에서 받침으로 쓰인 'ㄴ'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비음이라 하더라도 음운 변동현상 '비음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 잡는다 → 잠는다

죽는다 → 중는다

국물 → 궁물

3. 유음화

유음: 유음은 오로지 'ㄹ'이다.

유음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ex) 전라도 → 전라도

원리는 비음화와 같다. 다만 유음화는 유음(ㄹ)아닌 것이 유음(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ㄹ)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전라도' '전'에서 받침 'ㄴ'은 유음이 아니다. 뒤에 오는 '라'에서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아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음화라 한다.

ex) 신라 → 실라 권력 → 꺾력 물난리 ⇨ [물랄리] 줄넘기 ⇨ [줄럼끼]

4. 된소리 되기

예사소리(평음)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작다 → [작따], 잡고 → [잡꼬], 감다 → [감따]

위의 예를 보면 'ㄷ, ㄱ' 등이 'ㅌ, ㄲ' 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된소리되기에는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어간 받침 'ㄴ, ㅁ'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이 있다.

첨가

'ㄴ' 첨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y'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을 'ㄴ' 첨가라고 한다.

맨+입 → [맨닙], 늦+여름 → [느녀름], 한+여름 → [한녀름]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자음 축약

ㄱ + ㅎ = ㅋ

ㄷ + ㅎ = ㅌ

ㅈ + ㅎ = ㅊ

ㅉ + ㅎ = ㅊ

ex. 좋다[조타], 낙하[낙카], 잡히다[자피다], 놓지[노치]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한 모음으로 되는 현상

ex. 가리어(ㅣ + ㅣ) → 가려, 두었다(ㅜ + 어) → 뒸다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넋 → [넉] 흙 → [흑] 삶 → [삼] 밭고 → [밭꼬] 없다 → [업따] 앉지 → [안찌]

위의 예를 보면 ‘ㄱ, ㄴ, ㄹ, ㄹ, ㅂ, ㄴ’이 ‘ㄱ → ㄱ, ㄴ → ㄱ, ㄹ → ㄹ, ㄹ → ㄴ, ㅂ → ㅂ, ㄴ → 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자음 중에서 어떤 자음이 탈락하는지는 자음군의 종류와 방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2. ‘ㅎ’ 탈락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혹은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ㅎ’ 탈락이라고 한다.

좋은 → [조은] 놓으니 → [노으니]

3. ‘-’ 탈락

‘-’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 탈락이라고 한다.

크+어서 → [커서] 쓰+어라 → [써라]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간 끝에 모음 ‘-’를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어서’ 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난다.

도치

한 단어나 어군(語群)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ex. 해야로비 > 해오라비'

19. 독해 빈칸 추론

정답 ②

1.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 인간사와 자연사는 다르다.

2.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 마르크스는 인간사(역사)와 자연사는 같다고 본다.

3.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앞문장의 부연

4.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앞 두 문장의 결론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은: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인간사와 자연사는 같게 보아야 한다.’는 ②번이 정답

20. 문학 수필 독해

정답 ④

선택지 ④번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가 비교적 제시문의 내용에 가깝다.

- ① 제시문 어디에도 ‘무소유의 교훈’과 연관될 만한 내용이 없다.
- ② 제시문 어디에도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와 연관될 만한 내용이 없다.
- ③ 제시문 어디에도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와 연관될 만한 내용이 없다.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 지은이가 경험한 일.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찹찹해서 심기가 훌가분하지 않다.

→ 지은이의 급한 성격이 드러남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데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 우연한 행동, 깨달음의 계기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 깨달음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봄.

제목: 거꾸로 보기

출전: 법정, <산방한담(山房閑談)>, 1978~1983 수필집

장르: 경수필

주제: '거꾸로 보기'를 통해 얻은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

처음엔 충격, 다음엔 감동, 그리고 반드시 기적!

2017 여름, 날마다 특강, 양산 박병희 남부고시 노량진

[타박타박] 공무원 국어 7월 3일 개강

[삼위일체] 빨간책 문법 7월 7일 개강

※ 매주 금요일 오후

국어 학습을 습관화할 수 있는 '읽을거리' 매일국어 출력본을

남부고시 노량진 본관에 비치합니다.